

통화정책 전환기

# 美 금리인하 지연 전망 확산... 비트코인, 7만달러 붕괴

상승가도를 달렸던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고용지표 발표 직후 차갑게 식으면서 7만달러가 붕괴됐다. 고용시장 열기가 지속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더 늦게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9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6만90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일 6만7000달러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 7일 7만1000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7만1920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다.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는 7만3000달러 선이다.

하지만 지난 8일 새벽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약 2시간 만에 6만8000달러까지 하락했다.

비트코인 급락 원인은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美 비농업 고용 27만명 증가  
주요 IB, 금리인하 전망 조정  
“12일 소비자물가지수 변곡점”

가상자산업계, 긍정적 전망  
“현물 ETF 규모 점점 커져”



/유투이미지

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지난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7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19만명 증가)는 물론 직전 12개월간 평균 증가폭(23만2000명)도 웃돌았다.

앞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과열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용 관련 지표 추이를 주시했다.

미국의 지난 4월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폭은 16만5000명에 그쳤고, 이는 1~3월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어 7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미 노동부의 발표로

용시장의 열기가 지속되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노동부의 고용지표 발표 후 주요 투자은행(IB)들의 7월 정책금리 인하 전망을 미루고 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씨티그룹과 JP모건은 오는 7월로 예상했던 연준의 최고 금리인하 시기를 각각 9월과 11월로 늦췄다.

또한 씨티그룹은 연준의 연내 금리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3회로, JP모건은 기존 3회에서 1회로 하향 조정했다.

앤드루 홀렌호스트 씨티 수석 미국 경제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놀라울 정도의 강한 고용 증가다”라며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좀 더 둔화된 고용지표를 기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유입세가 높기 때문에 비트코

인 가격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약 8억8700만달러가 순유입됐다. 이는 18거래일 연속 순유입이며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비트코인 ETF 운용 자산은 지난 5일 200억달러(27조5000억원)를 돌파하면서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금리인하에 대한 실망감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된 것 같다”며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하반기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2일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금 가격 5주만에 최저... 온스당 2325달러

올 들어 두번째로 큰 하락폭 기록  
中 중앙은행 금 매입 중단도 영향

미국 고용시장이 시장의 예측을 뒤집고 강한 고용 증가를 기록하면서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이 크게 내렸다. 건조한 고용 지표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중앙은행도 금 매입을 중단하면서 지난 수 개월간 이어진 금 가격 강세가 다소 주춤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뉴욕선물시장에서 금 가격은 전일보다 65.90달러(2.76%) 내린 온스당 232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5월 8일 기록한 온스당 2322.30달러 이후 5주 만의 최저치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이다.

이번 금 가격 하락은 미 고용시장이 시장의 예측을 뒤엎고 견실한 지표를 내놓으면서 연준(Fed)의 금리인하 시



미국의 금리인하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 전망이 나오면서 금 가격도 약세를 나타냈다.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 골드바가 전시돼 있다. /뉴시스

기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 가격은 지난달 20일 사상 최고가인 온스당 2438.50달러를 기록한 이후 조정에 돌입해 온스당 2300달러 중반에서 등락을 이어왔다. 지난 6일에는 7일 미 노동부의 5월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고용시장 완화 전망에 힘입어 온스당 2390.90달러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 7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5월 미국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는 27만2000개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인 20만개를 크게 웃돌았다. 시간당 임금도 전년 대비 4.1% 상승을 기록해 시장 예측치보다 높았다.

고용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가 기존 예측인 9월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했다. 이에 따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주요한 인플레이션 헤지(화폐) 가치 하락기에 화폐를 가치 보존이 가능한 자산으로 대체하는 것 수단으로 꼽히는 금 수요가 하락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시장에서 예측한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50.45%다. 직전 전망치인 68.68%에서 하루 만에 18.23%포인트(p) 내렸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선결 조건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

승)과 고용시장의 완화를 내걸었던 만큼 당분간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국 자산관리 업체인 페이덴앤라이겔(Payden&Rygel)의 제프리 클리블랜드 이사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연초 금리인하 전망은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증가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대해 세워졌지만, 그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며 “지금으로선 금리인하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중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중단도 금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은 지난 18개월간 금 가격의 꾸준한 상승에도 금 매입세를 이어왔지만, 지난 5월부터는 금 매입을 중단했다.

글로벌 자산관리 업체인 엑시니티(Exinity)의 한 탄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18개월간 이어진 인민은행의 금매입 중단으로 몇 차례 이어진 금 가격 경신의 주요 요인이 사라졌다”며 “새로운 중앙은행의 매입 및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 없이는 금 가격이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1면 ‘유럽 금리인하...’서 계속

### “韓, 10·11월 인하 가능성”

물가에 이어 환율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 이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미국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9월(54.38%)로 예상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ECB와 캐나다도 올해 성장률 전망이 1% 안팎이며 물가도 2%대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여 금리인하가 가능한 것”이라며 “한국은 올해 성장률이 2% 중반대로 예상돼 서둘러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이 낮은 데다 물가도 아직 목표치(2%)에 부합하지 않아 10월은 돼야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ECB의 선제 인하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인하 시기로 예상된 9월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물가가 안정 기조를 찾긴 했지만 7, 8월 인하가 결정되긴 이르다고 보고 10, 11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삼성, 유럽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갤럭시 AI’ 주효

갤럭시 S·A 시리즈 출하량 증가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첫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기능을 선보인 갤럭시 S24 시리즈와 갤럭시 A 시리즈 등 중저가 스마트폰이 인기를 끈 덕분이다.

8일(현지시간)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출하량

1210만대를 기록하며 37% 점유율로 1위에 올랐다.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 늘었다.

이 기관은 삼성전자 1분기 성과에 대해 갤럭시 AI를 강조한 대규모 마케팅 투자 등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시리즈를 통해 인터넷 연결 없이도 통화 중 실시간으로 통역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 통역 콜’과 화면 위에 간단한 동작만 하면 이미지 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클 투 서치’ 등을 공개하며 주목받았다.

그 결과 1분기 갤럭시 S 시리즈 유럽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430만대를 기록했다. 이 중 울트라 모델 출하량은 160만대로 전체 스마트폰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분기 갤럭시 S23 울트라가 90만대로 갤럭시 A54, 갤럭시 A53 등에 밀려 6위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유의미한 성과다.

한편 기기별 출하량 순위를 보면 중저

가 스마트폰 갤럭시 A15가 눈에 띈다. LTE 모델(160만대)이 전체 4위, 5G 모델(120만대)이 7위를 기록했다. 합치면 약 280만대로 기기별 출하량 1위인 애플 아이폰 15 프로 맥스(260만대)보다 많다.

기기별 출하량 2위는 아이폰 15 프로(160만대)였다. 하지만 애플 스마트폰 전체 출하량은 삼성전자, 모토로라, 샤오미 등 경쟁사 성장에 밀려 전년 동기 대비 17% 줄었다. 시장 점유율도 22%로 전년 대비 5%포인트(p) 줄었다.

샤오미는 중저가 스마트폰 레드미 13C(120만대), 레드미 노트 13(110만

대) 판매 호조로 점유율 3위(16%)를 기록했다. 모토로라와 아너는 각각 6%와 3%로 4, 5위에 올랐다. /김서현 기자 seoh@



갤럭시 S24 울트라

/삼성전자